

No.37

Japan Weekly Digest

2010. 5. 31 ~ 6. 6

□ 일본 간 나오토 정권 출범 특집

“간 나오토 총리 선출과 향후 전망”

- 가스미가세키 각 부처의 반응
- 일본의 새 내각
- 신정권에 대한 경제 3단체의 반응
- 향후 정국 및 한일 관계 전망
- 신임 총리 약력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특집

일본 간 나오투 총리 선출과 향후 전망

- 하토야마 총리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4일 차기대표를 선출하는 당대표 선거를 통해 **간 나오투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차기 총리로 선출함
 - 유효 투표수 420표(당 소속 국회의원은 423명)의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291표를 얻어 새 대표에 당선
 - * 다루토코 신지 중의원 환경위원장은 129표
 - 간 나오투 새 대표는 4일 오후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수상지명 선거에서 **제94대 총리로 지명됨**
 - 간 대표는 조각 작업에 바로 착수, 다음 주 8일까지는 새 내각을 발족할 예정
- 미군 후텐마기지 이전문제를 둘러싼 혼란의 책임을 지고 2일 사의를 표명한 하토야마 총리의 후계자 선정은, 7월 11일 참의원선거가 목전에 다다른 가운데, 불과 2일간의 스피드 선거였음
 - 처음부터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간 새 대표는, 오자와 전 간사장과 거리를 두는 그룹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지지기반을 넓혀, 선거전에서 승리
 - 간 새 대표는 연설에서 「지금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타파하겠다. 하토야마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하겠다」고 결의를 표명
 - 신임 총리는 신뢰회복, 강한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 보장의 일체적 실현을 새 정부 과제로 제안

□ 가스미가세키(霞關) 각 부처의 반응

- 도쿄·가스미가세키(霞關)의 중앙부처에서는,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표명에 대해 「놀람은 없다」(후생노동성 간부)는 한편, **국회 회기 말을 즈음하여 법안 심의나 경제 재정운영에 불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확대
- 재무성 간부는 「누가 총리가 될지에 따라 정책도 바뀐다. 향후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6월에 예정이 되어있는 각종 정책들이 보류에 될 수 있다고 우려
- 후생노동성 간부는 「정권은 말기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급. 국토교통성 간부도 하토야마 총리에 대해 「변명을 많이 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

- 경제산업성이나 내각부의 간부도 「심의중인 법안이 어떻게 될지 마음에 걸린다」, 「새로운 체제가 결정될 때까지 심의는 스톱」 등 우려의 목소리

□ 일본 새 내각

-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제94대 수상으로 지명된 간 신임 총리는 국민신당과 연립정권협의를 거쳐 새 내각을 발족할 예정
 - * 연립정권협의: 연립정권에서 정책과제를 확인하는 회의. 복수의 정당이 정권에 참여하는 경우, 정책과제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관례임
- 간 대표는 인사 구상에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새 내각의 조각을 다음 주까지 보류할 방침을 정함
-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총무성장관·부총리에 센고쿠 국가전략상, 당 간사장은 에다노 행정쇄신상을 기용. 간 대표의 후임 재무장관에는 노다 재무부장을 승격, 센고쿠씨의 후임 국가전략상에는 아라이 총리보좌관을 기용할 예정**
- 민주당 와타나베 前중의원의장은(일한의원연맹회장), 발족하는 새 내각인사에 대해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모두가 『역시!』라고 칭찬해 주는 인사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
- 대표선거에 관해서는, 과거와 달리 「다수파 공작이나 당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없었고, 전후 가장 깨끗한 대표 선거였다」고 강조
- 간 새 대표의 연설이 인상적이라는 평가. 특히 『전원 참가형의 정책조사회를 부활시킨다』는 언급이 좋았다고 강조

□ 신정권에 대한 경제 3단체의 반응


- **요네구라 경단련 회장**
「고뇌의 결단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일치단결하고 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빠르게 확립해 주었으면 한다」
- **사쿠라이 경제동우회회장**
「총리가 단임으로 사임한 것은 유감이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은 크다. 민주당은 새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여당으로서 책임감과 설득력이 있는 매니페스토를 국민에게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 **오카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신정권은 국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에 확실히 귀를 기울이고, 성장전략과 재정운영을 빠른 시기에 수립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주었으면 한다」

- 기타 「대단히 유감스럽다. 내외경제에 현안사항이 산적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경제계에 대단한 마이너스가 된다」, 「6월에 정부의 성장전략을 발표하기로 되어있었는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다. 정책의 영속성 면에서 향후가 불안하다」고 정치공백을 걱정

□ 향후 정국 및 한일 관계 전망

- **간 나오토 새 대표**에게는 △미·일 관계 복원과 오키나와 주민 반발 해소 △디플레이션과 재정적자 해소 등 경제문제 △민주당에 대한 신뢰 회복 등 난제가 기다리고 있음
 - 무엇보다 7월 참의원선거를 치러내야 하며, 만약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신임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하는 임시직 총리가 될 수도 있음
 - 민주당은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 실시되는 2013년까지는 정권을 유지하게 되나,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국 혼란이 심화될 전망
- 일본 언론 및 전문가들은 ‘누가 총리가 되던 **한일 FTA 추진 등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
 -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외교 기조가 아시아 정책을 중시하고,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도 한일 FTA 추진, 과거사 문제 등 한·일 외교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 예를 들어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이 민주당의 정책 공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그러나 일본 정국 불안으로 외교정책에서 전향적인 정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참정권문제·과거사문제 등에서 큰 진전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
- 간 새 대표는 ‘**엔화 약세와 親기업 정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제개혁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간 새 대표는 1월 재무상에 취임한 뒤로 수출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고 디플레에 맞서기 위해 엔화 약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혀움
 - * 엔 약세는 상대적인 수출가격을 낮춰 수출기업에 유리하며, 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
 - 디플레이션 국면을 전환시킬 유일한 방안은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 회복밖에 없다는 판단이며, 하토야마 총리의 ‘친 노동자 정책 및 탄소 배출규제 강화’ 등에서 정책방향 수정이 예고되고 있음

□ 신임 총리 이력

성명	간 나오토(菅 直人)	
직위	일본 중의원 (도쿄18구, 10선)	
생년월일	1946. 10. 10. (63세) * 오카야마현 출신	
학력	1970년 東京工業大学 理学部応用物理学科 卒業	
경력	1971년 변리사 합격 1974년 이치가와 후사에 참의원 선거사무장 1976년 중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77년 참의원선거, 79년 중의원선거에서 연달아 낙선 1980년 중의원선거에서 첫 당선. 사회민주연합에 들어감 1985년 당부서기장 겸 정책위원장에 취임 1996년 하시모토내각에서 후생성대신으로 취임. 약물에이즈문제를 철저하게 규명,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국민들에게 각인 1996년 하토야마 유키오와 민주당 결성, 당 대표에 취임 1999년 대표선거에서 하토야마에게 敗. 당 정책조사회장 취임 2002년 대표선거에서 오카다에게 이겨 당 대표 취임 2004년 행정착오로 인한 연금미납 사실이 드러나 대표 사임 2006년 민주당 대표대리에 취임 2009년 부총리 겸 국가전략상 취임 2010년 부총리 겸 재무대신 취임	
특기 사항	* 민주당 일한의원교류위원회 고문, 일한의 원연맹 소속 * 2003월 2월 당시 민주당 대표자격으로 노무현 대통령 접견(취임축하), 2008년 2월 일본 민주당 대표대행자격으로 來韓, 이명박 대통령 접견(취임축하) 등 한국과의 교류가 많은 인물 * 외국인 참정권 허용에 적극적 * 가족 : 부인(간 노부코)과 2남 *한 살 연상의 사촌누나와 결혼 * 취미 : 술과 바둑, 고양이를 좋아함 * 저서 : 大臣, 개혁정책준비완료, 90년대의 증언 등 * 좌우명 : ‘인생은 단 한번 뿐’	

【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

□ 『농지제도 개정 후 기업의 농업 진출』 농림중 앙금고연구소, 6월1일

- 농지제도개정의 포인트는 농업에 대한 진입을 자유화하는 것임. 향후 농업에 대한 기업의 진출을 가능도록 하고, 기업은 지역농업과 상호보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협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이 중요

<http://www.nochuri.co.jp/report/pdf/n1006re1.pdf>(출처)

□ 『일본경제와 이노베이션』 일본은행, 6월1일

- 잠재성장률이나 생산성의 저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의 노력이 중요. 개별 기업의 노력과 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하고, 경제의 신진 대사를 높여 가는 것이 중요. 일본 은행(日本銀行)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http://www.boj.or.jp/type/press/koen07/data/ko1005b.pdf> (출처)

□ 『일본경제전망』 일본종합연구소, 6월3일

-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회복 경향이 지속될 전망. 그러나 공공투자의 감소와 에코 포인트, 에코 카 감세 등 정책효과가 사라짐으로서 후반기 경기는 서서히 하강할 수 있음. 6월부터 지급되는 ‘어린이 수당’도 개인 소비를 진작시키는 힘은 제한적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column/social/2010/0518.html>(출처)

【금주의 일정】

일자	주 요 일 정
5/31(월)	○ 하토야마총리·중국 원자바오총리 정상회담 (도쿄) ○ 원자바오 중국총리 경단련 방문 ○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 강연 ○ 신임 일본무역협회 회장 기자회견 * 신임 회장에 미쓰이물산 회장 취임 ○ 4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경산성) ○ 4월 자동차생산·수출실적 발표 (자동차공업회)
6/1(화)	○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경쟁력부회 개최(경산성) * 산업구조비전 결정
6/2(수)	○ 5월 Monetary base 발표(일본은행)
6/3(목)	○ 1~3월기 법인기업통계 발표(재무성)
6/4(금)	○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부산, 5일까지)

【파트너를 찾습니다】

열처리로 로체 위탁생산

- 일본기업으로부터 열처리로 로체(爐體)를 한국기업에 생산위탁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SUS제관품 /도면 개별 제공)
- 주요사양
 - 개략치수 : 5000×1300×826
 - 소재재질 : SUS310S 및 SUS304
 - 정 밀 도 : JIS B0404 1977 에 준함
 - 열처리 온도 : MAX 800℃

선박(어선)용 엔진절감장치 판매대리점 모집

- 의뢰기업명 : S기업(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
- 일본 S기업(상사)에서 어선용 연료절감장치 (메이커:니혼테크노)를 한국내에서 선주(船主)를 대상으로 판매해줄 대리점을 찾고 있음.

초소형 프레이즈반(밀링머신) 판매 / 부품조달

- 의뢰기업명 : 에노모토 공업
- 일본의 에노모토 공업으로부터 초소형 프레이즈반 한국 판매 및 해당 부품의 (한국으로부터의) 조달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다.

스텐레스단조 부품(반도체제조장치용 밸브) 조달

- 의뢰기업명 : U공업 (기업명 추후 공개)
- 일본에서 한국의 스텐레스단조메이커를 찾고 있습니다.
- 용도 : 반도체제조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부품
- 향후일정 : 추후 도면제공, 공장견학 예정

특허리포트 판매 희망

- 의뢰기업명 : 네오테크놀로지
- 일본기업 네오테크놀로지(www.neotechnology.co.jp)에서 한국 출판사 또는 기업(전자분야)을 대상으로 특허 리포트 판매를 희망

*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 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전재용 선임연구원
Tel : 02-3014-9845 / jjun@kjc.or.kr

